

# 전국 첫 로봇리퍼브센터 효과... 김해시, 실증사업 5건 선정

경상남도 내 '최다 실적' 기록  
공정모델 2건, 재제조지원 3건  
로봇 재제조 산업, 성장동력 육성

김해시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6년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에서 경남도 전체 선정 과제 11건 가운데 5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내 단일 지자체 최다다. 공정모델형 2건, 재제조지원형 3건으로, 특히 올해 신설된 재제조지원형은 배정 3건 전량이 김해시 과제였다.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은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올해 총 예산은 약 96억원, 수행 기간은 협약일부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유형은 ▲공정모델형 ▲수출지원형 ▲재제조지원형 3가지다.

재제조지원형은 사용 이력이 있는 산업용 로봇을 분해·점검·부품 교체해 신



김해시청.

품 수준으로 복원한 뒤 제조 현장에 투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이다. 재제조 로봇은 신품 대비 도입 비용이 낮아 중소기업의 자동화 문턱을 낮추고,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주목 받는다.

김해시의 독점적 성과 배경에는 인프

라가 있다. 재제조지원형 총괄주관기관인 한국로봇사용자협회가 김해 진례면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한국로봇리퍼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2022년 산업부 공모로 선정돼 총사업비 221억원 규모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공

공 로봇리퍼브센터로 준공됐다. 지상 3층·연면적 2033㎡에 공용장비실·홍보관·기업 입주공간을 갖추고 로봇 성능 평가부터 안전 검증, 기술 지원까지 제조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실증사업에는 세계산업·동원테크·KSM 등 지역 제조 기업 3곳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자동차 부품 비전 검사, 사출품 공정 자동화, 차체 용접 최적화 과제를 맡는다. 로봇 시스템 구축은 모토텍·로봇루션 등 지역로봇SI·재제조전문 기업이 담당해 로봇 도입부터 재제조·유지 관리까지 지역 내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로봇 재제조 기반과 지역 기업 간 협력 체계가 결실을 맺었다"며 "물류 로봇과 산업용 로봇 재제조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창원시

#### '통학로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창원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CCTV 시스템인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0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로 늘린 것이다.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 CCTV에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가 차도로 진입하거나 보호구역 내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면 AI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안내 방송은 평일 오전 8시~10시, 오후 1시~6시에 집중 운영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 영양군

#### 지역 농어민수당 24억 지급

영양군은 17일부터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모두 3989농가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주 1인당 6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3억9340만원이다. 수당은 영양사랑상품권 지류로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포항, 수소배관 시험평가 기반 구축

수출형 강관 신뢰성 평가사업 선정  
2030년까지 197억8500만원 투입

포항시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북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97억85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최근 강관 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 캐나다의 할당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고부가가치 수소배관의 국산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강관기술센터 부지에 990㎡ 규모의 방폭고압수소 시험평가동이 새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고압수소 환경용 파괴인성 평가시스템 등 고압수소 및 CCS 전용 시험평가 장비 10종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시는 기존 배관시험평가 장비 13종과 연계해 고압수소와 이산화탄소 운송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소취성과 내식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배관 신뢰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요한 수소이송·재순환 배관의 국산화와 글로벌 표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142명 창출, 생산유발효과 47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4억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경남도, 동물보호센터 18곳 안전점검

농식품부·시·군과 합동 진행

경남도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 호우에 대비해 오는 26일까지 도내 동물보호센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여름철 동물보호센터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하나로,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사바율이 높은 일부 센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경남도 점검 대상은 직영 12개소, 위탁 6개소다. 올해 1월 함양군 동물보호센터가 신축 개소하면서 직영 센터가 12개소로 늘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냉방·환기 설비 운영 상태 ▲차광 시설



동물보호센터 강아지들. /경남도

설치 여부 ▲보호 동물 건강 상태 ▲침수·붕괴 등 시설 안전관리 상황 등이다. 실내 보호 공간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도 점검 확인 대상이다.

보호소 내 동물은 스스로 더위를 피하거나 물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냉방·급수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고 후속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 경주 광명~화천 도로 30일 전면 개통

KTX역세권 접근성 향상

경주시는 KTX 경주역세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 904호선 광명~화천간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오는 30일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명동 광명삼거리에서 KTX 경주역세권을 잇는 1.6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경북도가 시행하고 총사업비 21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4월 광명삼거리~제1화천교 구간 0.7km를 먼저 개통한 데 이어 이달 말 제1화천교~반도유보리아파트 구간 0.9km가 추가 개통되면 전 구간 연결이 완료된다.

광명~화천 도로는 광명삼거리와 KTX 경주역세권, 공동주택단지 등을 잇는 주요 교통축이다. 시는 도로 개통으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등 인근 산업·연구



오는 30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둔 광명~화천 도로와 KTX 경주역세권 일대 모습.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로 확충과 선형 개선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도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광명~화천 도로 확장사업 준공으로 KTX 경주역세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강화됐다"며 "교통 편의 증진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부산 국제해양영화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오늘 개막... 15개국 47편 영화

부산시는 '제9회 국제해양영화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 영화제는 '바다앞에, 우리는(Standing Before the Sea)'을 주제로 15개국 47편의 장·단편 해양 영화를 상영한다. 지난해 10개국 33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국과 상영 편수 모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개막작은 남극 해양 생태계와 기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2편이다. 캐서린 프랜시스·캠벨 블루어 감독의 '남극을 위한 연대(All Eyes on Antarctica)'와 호아킨 아줄레·홀리안 아줄레 감독의 '도메인 원(Antarctica-Domain one)'이 선정됐다.

21일 폐막작은 심해 황혼대를 탐사하는 해양생물학자의 여정을 담은 타샤 반 잔트·세바스티안 제르 감독의 '아름속에 빛이 있었다(A life Illuminated)'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인공지능(AI) 해양 영화 섹션도 눈에 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편과 초청작 8편 등 11편의 AI 제작 해양영화를 별도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바다 수영 애호가들이 관련 영화 4편을 함께 관람하는 커뮤니티형 프로그램 '수천자 클럽', 로컬 브랜드 마켓 '바다 마르세', 관객과의 대화(GV)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장은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더 많은 이가 바다의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국립부경대-KIOST

#### '해양수도권' 발전 학연 협력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16일 국립부경대 대학본부에서 '해양수도권 발전 및 해양수산 학연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경대의 해양수산 특화 교육 역량과 KIOST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해양환경·기후 변화 등 미래 해양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연구 시설과 장비 공동 활용 ▲해양과학기술 특화 미래 인재와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연구 정보와 인프라 교류 ▲학술 행사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해양산업 발전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